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5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스마트도시 담당관	담 당 자	• 스마트도시조성팀장 심왕보 ☎440-8926 • 담당자 정길수 ☎440-892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전국 최초 주민자치 기반 「디지털 마을플랫폼」 만든다

- 5일, 「디지털 마을플랫폼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 내년 1월 본격 운영, “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투명성·효율성 향상 기대” -

각 동, 주민자치회 운영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 전 과정을 연계한 전자적 관리체계인 「디지털 마을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민자치 기반의 「디지털 마을플랫폼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 통합표준모델 설계를 바탕으로 디자인 시안에 대한 품평회를 가졌다.

이번 플랫폼 구축사업은 내년 1월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137개 주민자치회 업무관리, 회계관리, 사업관리, 그룹관리 등 4개 업무 전반을 플랫폼화하는 사업이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인천시가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문서작성, 회의록, 지출결의, 결산보고, 주민총회 등을 플랫폼 내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 유기적인 뒷받침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추진된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네트워킹 활성화 및 지도를 활용한 마을 자원 공유, 온라인 투표 기능을 도입해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조성기 ▲빅데이터·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정착안정기 ▲디지털 자산화 단계인 도약발전기까지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앞장서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사진> 관련이미지

<사진> 관련 이미지

